

가톨릭대 서울대 한양대 등 추천형 종합전형 운영

종합전형에도 학교장 추천이 있나요?

학교장추천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학생부종합전형 중에도 학교 추천을 받는 전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추천형 종합전형이 궁금합니다.

추천형 종합전형에는 가톨릭대 학교장추천전형,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한양대 추천형 종합전형이 있습니다. 가톨릭대 학교장추천전형은 의예과 약학과 간호학과만 선발하는데, 고교별 추천 인원은 모집 단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약학과와 간호학과는 따로 제한이 없고 의예과는 고교별 1명만 추천 가능하죠.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은 고교별 추천 인원이 2명 이내입니다.

추천형 종합전형은 이처럼 소수 학생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지난 2025학년 한양대가 종합전형에 추천형을 신설하며 주목받았습니다. 고교별 추천 인원이 3

학년 재적 인원의 11% 이내였기 때문입니다.

경북 현일고 기대연 교사는 “고교의 한 학년을 2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11%는 22명이다. 꽤 많은 인원이다. 수험생 입장에서 기회가 늘었다고 생각돼 한양대 추천형 종합전형은 경쟁률이 높은 편이었다. 이후 대학 발표에 따르면 일반고 출신 합격자 비율은 43%였으며 합격자 평균 내신은 2.63, 최저 충족률은 66%였다. 합격자의 내신 교과 성적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3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였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관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추천형 전형 역시 추천을 받는 것을 넘어 최저 기준 충족 가능성과 학생부 경쟁력을 살려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취재 김민정 리포터 mjkim@naeil.com 도움말 기대연 교사(경북 현일고등학교)